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대한민국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8

1997

제3권 제8호 통권26호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우리의 각오

경쟁의 시대를 기회로 삼아 발전하는 계육산업

우리나라의 계육산업은 최근 수년간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취약함을 안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7월부터 전면적인 수입자유화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태풍의 눈처럼 우리 계육산업에 미치게 될 막강한 영향력을 예측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또, 우여곡절 끝에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여 적용하므로써 사육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이 문제 또한 계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절대적인 취지에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다. 더구나 계육의 전면 수입개방이 되면서 대기업이 앞다투어 계육수입에 나서고 있으며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불과 7월 한달동안 집계에 의한다 하더라도 계육의 검역실적이 가공품을 포함하여 1,150여톤이 수입되었으며 이와같은 추세라면 우리 계육산업의 앞날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은 뻔한 이치이다.

피차 예견된 일이었다 하더라도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며 그렇다고 경쟁의 시대에서 이처럼 수입업체만을 탓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양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했어야 한다. 물론 기다렸다는 식으로 혹은 반사적인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계육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계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산업과 사회적인 여건이 복잡하고 또 경제불황속에서 말로만 '경쟁력을 높이자', '수입을 자제하자'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가지 한가지씩 찾아가야 한다.

'경쟁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안고 있다는



나 원 주 사장
(주)화인코리아 대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맡은바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 강화의 시작이다. 종계업자는 종계의 생산성을 1% 높이는 일, 부화장은 부화율을 1% 개선하는 일이 현실적인 일이며 각 계열주체는 경영을 합리화 해야하고 각종 계육제품의 개발 및 수출증대에 1%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사양가는 철저한 사양관리를 적용하여 고품질의 계육생산 및 1%의 출하율을 더 높이는 일과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 및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므로써 자유경쟁하의 계육산업의 기틀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서로의 타만하고 있 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조급하다. 특히, 계육산업의 특징은 수요공급에 따른 산물의 가격진폭이 너무 크고 수급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개선과 계열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 또한 생산량의 팽창으로 인한 양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운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계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고품질의 계육생산 측면에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은게 현실이다. 원가절감은 배제한채 양적인 팽창으로 계육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지못한 계열업체는 경쟁력보다는 나날이 계속되는 경영 압박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모든 계열업체의 현주소이다. 단순 생산비 비교로 우리계육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값싸고 질좋은 외국산 계육을 맛보게 될 것이고 국내 계육의 고단가를 견제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와 양식이 있으며 전통의 식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 좋고 우수한 국산닭고기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앞날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자.